

인제군(<http://www.inje.go.kr>)

발행인:인제군수 / 편집:기획감사실
252-807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 187번길8
☎ 033) 461-2122~9
FAX 033) 460-2019



contents 지면안내

포커스 / 2·3면

**명품 산소 숲속트래킹
새봄 싱그러운 기지개**

특집 / 4면

2014 인제군 교육경비 내역



자연을 먹는다
인제농특산물 5대명품



생물자원 조사 보고회

세계신종 후보 2종 한국미기록종 4종

생물자원 수도 외연 넓혀

생물자원의 수도 하늘내린 인제의 외연이 무한히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제군은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인제군 생물자원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그 동안 알려진 6천200여 종에서 300여종이 늘어난 6천500여종의 생물자원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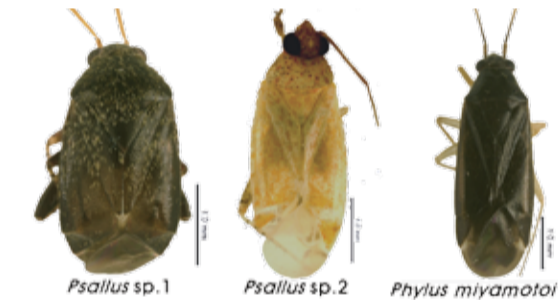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문헌 자료에 의한 6천195분류군 가운데 3천466분류군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이명, 오동정, 분포 의식 중 등 서식이 확실치 않은 종은 제외하고 새롭게 발견된 세계신종후보 5종, 한국미기록종 4종, 인제군 미기록종 309종 등 328종이 추가 조사 해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2천285점의 표본과 714점의 사진자료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은 지난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북아식물연구소, 서울대, 전북대 등 전문가 그룹이 과거 여러 학술기관에서 조사보고 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식물, 곤충, 어류, 균류 등 인제군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2차년도 조사 용역을 통해 생물 자원 및 서식환경 조사와 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 유용생물자원과 미기록종 및 신종 발굴·확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종의 다양성 유지 및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2011년 환경부가 발표한 종의 다양성·희귀성·생물서식환경 등 환경성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환경보호과 생태환경담당(☎460-2065)으로 하면 된다. <환경보호과>



▶ 신종 및 미기록종.



▶ 가지 더부살이.



▶ 옥구슬이끼.



▶ 창발이끼.

인제군 인구를 늘립니다

합 계 32,744명 ▲ 27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9,877명 ▲ 27	3,932명 ▼ 22	8,766명 ▲ 27	5,298명 ▼ 6	3,215명 ▼ 10	1,656명 ▲ 11



전국 최고의
산림을 자랑하는
하늘내린 인제군.
웰빙 신드롬과 더불어
해마다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제군의
푸르고 싱싱한 명품 산소길이
트레킹 동호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산하는
새 봄을 맞아
새 생명을 틔워
약동하는 계절을 노래한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가득한 인제군의
푸른 산과 깨끗한 계곡,
맑은 하늘이
봄이 그리운 관광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파란 물빛 바라보는 푸른 숲속 길 지친 심신 힐링하는 산소 명품 길

내년 순환코스 마련 트레킹 1번지

소양호 둘레길 아름다운 내린천과 소양호 상류가 만나는 살구미 마을을 출발해서 38대교에서 끝나는 소양강 둘레길.

인제군은 지난 2010년 사업에 본격 착수해 살구미 마을에서 소류정을 잇는 1코스 공사를 지난 2011년 3월에 착공, 지난해 10월에 완공했다.

이 가운데 칠공주터에서 전망대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 구간은 지난 2011년 6월에 착공해 2012년 10월에 완공했다.

이어 소류정에서 38대교를 잇는 2코스는 지난 2012년 6월에 착공해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치고 동호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1코스 가운데 하늘길은 6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대자연에서 싱싱하고 푸른 산소를 만끽하기에 충분

한 명품 산책길로 자리매김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군축교 부근에서 출발해 옛 관대리 가는 길로 접어들어 개룡리를 거쳐 38대교에 이르는 2코스는 소양호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고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트레킹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소양호 둘레길이 트레킹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힘입어 인제군은 인제읍 남북리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광장에서 출발해 남북리 경로정(군축공원)과 조림리 마을을 거쳐 용소를 지난 군축교에 이르러 2코스와 이어지는 아미산 기슭을 따라 5.7km의 산책길을 올해 공사에 착공해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 코스가 완공되면 소양강 둘레길은 모두 25.7km의 순환코스가 완성돼 더욱 다양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힐링 코스로 명성을 구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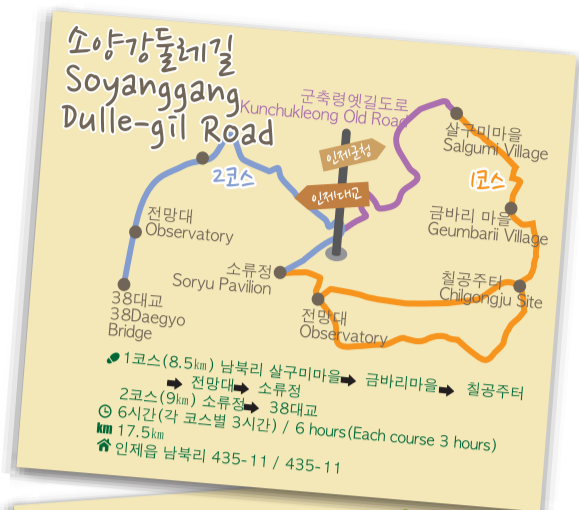
신선한 산소 · 1급수가 기다린다

아침가리트레킹 전설 속의 삼둔사거리. 그 사거리 가운데 하나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아침가리. 대자연의 심장부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그 신선

도를 자랑하고 있다. 때문에 이곳을 흐르는 물조차 물이끼를 거부할 정도로 시리고 맑은 계곡물은 영혼조차 맑게 씻어 줄 것만 같은 순수함으로 많은 트레킹 동호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인제군 관광정보센터 (☎460-2170)



2면에서 계속됩니다

특히 이곳은 1급수에만 살고 있는 열목어를 비롯해 청정수생 동식물이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해 줘 걷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그렇게 걷다보면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비롯해 하늘 다람쥐, 족제비를 종종 만날 수 있는 자연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받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소장 박치수)가 추진해 운영되고 있는 아침가리 트레킹 코스는 현재 방동교에서 섯다리 구간은 자연보호를 위해 통제된 가운데 방동교를 출발해 방동약수를 거쳐 조경동 다리를 돌아 아침가리골을 지나 섯다리 구간만 개방돼 운영되고 있어 다음을 기약하게 만들고 있다.

마의태자·동학 전설과 함께 걷기

소치길 남면 사무소를 출발해 옛소치분교까지 6km 구간. 이 길은 옛 갑둔리와 소치리 주민들이 남면 5일장을 가기 위해 산길을 따라 걸던 고갯길을 트레킹 코스로 개발해 지난해 다섯번째를 맞이하는 소치길 걷기대회가 마련된 바 있다. 남면 갑둔리 주민들이 지난 2006년 새 농어촌건설 운동을 추진하면서 조성된 가운데 경사가 완만

해 어린이와 노약자도 부담없이 산책하듯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레킹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낙엽송과 침엽수 군락지가 트레킹 코스 곳곳에 흩어져 있고, 정상에 오르면 떡갈나무 군락지를 지나가는 맛이 일품. 특히 마의태자 전설과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터로 유명해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소치란 이름은 사방에 고개가 있어 마을 모양이 솥단지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정상에서 만나는 바다 상큼한 맛

미시령 옛길 겨울철 눈만 내리면 밥먹듯 통제되던 미시령길. 이곳에 터널이 생기고 난 후 북새통을 이루던 도로는 한적하기만 하다. 이를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 것. 총길이 16km가 되는 길로 걸어서 6시간, 자전거로는 1시간 30분 걸리는 비교적 거리가 긴 트레킹 코스이다. 특히 미시령 정상에 오르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속초 앞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상쾌함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슬땀을 마다 않고 많은 트레킹 마니아는 물론 사이클 라이더들까지 즐겨 찾고 있다.

이 코스는 내설악의 비경을 품고 있어 심이선녀탕을 비롯해 만해선사의 열이 깃든 만해마을과 백담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미시령은 기록에 의하면 미시과령, 연수령, 연수과령 등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4개코스 최장 45km 골라 걷는 맛

둔가리 약수 숲길 인제 8경 가운데 하나인 방동약수와 천연기념물인 개인산 약수를 연결하는 4개구간의 총연장 45km.

이 코스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농로와 제방길을 보완해서 조성한 길로 방태산을 바라보며 원시림의 숲속을 걷는 것은 물론 마을을 바라보며 제방을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어 풍부한 서

정을 전해 줄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코스별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곳이다. 특히 2코스인 방동약수길은 때둔지에서 방동약수에 이르는 구간으로 내린천을 따라 펼쳐진 야생화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가운데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과 원시림을, 가을에는 단풍이 유명하다.

한편 방동약수와 개인약수 모두 위장병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청소년 페스티벌 공연.



인제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제군은 올해 모두 18개 사업에 21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한다.

이로써 관내 초중고교의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공교육의 고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인제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지역발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면학분위기 조성 18개사업에 21억원 투자 글로벌 시대 세계적인 뉴-리더 육성 지향

인제군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부문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3억원을, 관내 고교 기숙사비 지원에 2억3천만 원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으로 3억7천만 원을,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2억원을, 야간 방과 후 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5백여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제군은 지난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교육비 혜택을 받지 못하던 학생들에게도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소지역업자 및 소상공인 자녀 학생들의 수업료, 입학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비 불균형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라는 학생들이 보다 청결하고 쾌적하

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신남중고 급식소 리모델링에 9천3백만 원을, 한계초등학교 급식소 리모델링에 8천만 원을 각각 투자함으로써 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명문고 육성 지원에 2억원을, 청소년해외문화체험에 3천만 원을, 초등학교교실지원에 2억9천만 원을, 스마트리영어컨텐츠 지원에 3천만원 등을 각각 지원함으로써 세계화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인재를 육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독서캠프 및 도서관지원에 1억원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고 지역 학생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4회 인제청소년 드림하이 페스티벌에 7천만원까지 지원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제군은 이와 같은 다양하고 특성 있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나가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 인제군 인구 늘리기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행정과>



▶ 청소년 페스티벌 실외 프로그램.



▶ 학교 급식 학부모 참여행사.



▶ 아침밥먹고 학교 가기 캠페인.

인제군 고용률 70.7% 강원도내 1위

인제군 고용률이 70.7%로 강원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 역시 0.2%로 고성군과 함께 최저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16일 동안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지역 19만9천 표본가구에 살고 있는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인제군은 이 같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인제군은 지역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경제회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지표 결과를 보면 인제군의 15세 이상 인구는 2만4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1만7천여명으로 모두 취업해 실업자가 거의 없는 수준

통계청 2013년 고용조사

로 나타나 15세이상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참가율은 70.9%로 71%를 보인 횡성군에 이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율은 70.7%로 69.6%를 보인 횡성군 보다 1.1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세부터 60세 인구의 고용률 또한 74.7%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실업률 역시 0.2%로 나타나 1.9%를 보인 횡성보다 1.7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돼 강원 도내 시도 가운데 주민 경제활동의 건전성이 담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더욱 많은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지역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발판을 삼기 위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

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인제군은 원통농공단지 분양률이 92%를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율이 66% 보이고 있어 원통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모두 입주해 기동에 들어가면 인제군은 1만7천여명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률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제군은 게다가 자동차경주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인제 오토테마파크가 정상화되면 경제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률 증가세는 가파른 상승이 예상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을 통한 4만 인구 회복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제군은 올해 16개 사업단에서 562개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에게 제공함으로써 15세부터 64세까지로 한정된 경제인구 나이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경제지표상의 건전성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지표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감사실>



강원도 공무원 모집 안내

인제군 일반행정직 27명 등 모두 50명선발

2014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지난달 17일 공고된 가운데 인제군은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부분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강원도 일괄모집에 인제군 배정이 8명으로 행정7급 1명, 행정9급 장애인 1명, 행정9급 저소득 2명, 기록연구(연구사) 1명, 농촌지도(지도사) 1명, 일반전기 9급 2명 등이다. 또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제군 지역제한으로 8급 간호직에 2명, 9급 일반행정직에 27명, 시간선택제 일반행정직에 2명, 지방세무직에 2명, 일반농업직에 3명, 산림지원직에 1명, 보건직에 2명, 일반토목직에 3명으로 응시연령은 8·9급 모두 만18세 이상으로 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주민이다.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은 오는 4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원서 접수 취소기간은 7일부터 18일까지로 12일 동안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필기시험 장소는 오는 6월10일 공고되며 시험일은 6월21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8월19일 있을 예정이고 면접시험은 8월19일 시험장소를 공고하며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가운데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 있을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전화(☎070-4012-6103·6104)로 하면된다.

응시 수수료는 8·9급은 5천원이며 지역별 거주제한을 살펴보면 인제군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4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강원도내로 돼 있거나 2014년 1월1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지가 인제군으로 돼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강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249-2227·221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시험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공다짐을 위해 강원도 순회행사가 펼쳐져 지난달 27일 인제군을 방문한 가운데 인제군청 광장에서 군민이 뜻을 모아성공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제군, 관광두레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제군은 '2014 관광두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모험관광, 체험관광, 생태관광 등을 연계시켜 새로운 관광사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인제군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협업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앞으로 3년 동안 관광두레 프로듀서 활동지원, 지역역량강화 교

육, 관광사업 창출 멘토링,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을 받게 됐다.

2014 관광두레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해 20개 자치단체와 20명의 관광 프로듀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인제군은 전국에서 101개 자치단체가 지원해 5.0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또한 관광 프로듀서 부문은 158명이 지원해 7.9대 1의 치

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관광두레사업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자발적으로 조합 등을 구성해 관광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와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공동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모델로 강조해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이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화관광과>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

내린천 모험레포츠 40억원 투자

인제 모험레포츠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내린천 수역이 새롭게 단장되고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관광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제군이 지난해 준비해 신청한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투입해 내린천 주변을 개발하게 됐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3개 분야로 소득증대, 경관 개선,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가운데 세부 사업으로는 고사리 수변공원 시설 확충, 래프팅 접안시설, 원대교 경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올해 3억원을 들여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제군은 사업 완료 후에는 내린천 전체를 관광 상품화해 인제관광 이미지 개선은 물론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문화관광과>



물샬 틈 없는 통합방위 시스템 구축

인제군 통합방위 협의회는 지난달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통합방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마련하고 물샬 틈 없는 방위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인제스피디움 해결 4월 가시화 전망

인제 모험레포츠 방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제 오토테마파크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진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인제군은 지난달 10일 인제스피디움이 인제 오토테마파크조성사업 준공전 사용인가 종료 요청에 대해 사용인가 종료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는 물론 시설운영 관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임금지급 등 민형사상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수용했다.

이에 대한 인제군은 인제스피디움의 준공전사용인가 종료 요청에 대한 수용은 법

률적인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민간경제부문에 관한 민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인제군의 입장이다.

준공전 사용인가 종료 요청 사유는 준공전 사용인가의 목적인 아시안르망 대회 등 국내외 자동차 대회가 종료됐다는 점, 임시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 6개월상 장기간 임시 운영에 따른 시설의 훼손 방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 고정운영비가 과다지출된다는 점, 추가방음벽 설치 등 인근 주민 불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

제군은 현실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제군은 인제 스피디움 정상화를 위한 재무적 투자자, 건설적 투자자, 운영적 투자자 등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점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인제오토테마파크와 관련한 투자자들 역시 지금과 같은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한계점을 넘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4월중에는 해결책이 가시화되리라는 것이 인제군의 전망이다. <지역경제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 착수

전국 최대의 산림자원을 자랑하는 인제군은 이를 가꾸고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다목적공연장에서 발대식과 함께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가꾸기 사업장, 산림재해우려 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수집해 펄프 등으로 활용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와 주요 국도변 덩굴류 등을 제거해 산림재해 예방 및 생활권 주변의 미관을 개선하게 된다.

이 사업은 2만7천명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저소득층·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에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지난달 말까지 사업 참여자 120명을 최종 선발한 가운데 이날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복지과>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쓰레기는 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겨울철 연탄 사용에 따른 연탄재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정 및 상가에서 연탄재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아 수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배출방법을 지켜 깨끗한 인제만들기에 앞장 서주세요.

아래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박스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수분을 제거해 배출.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해 분리 수거가 용이 하도록 한다. ▶생활쓰레기 부적정 배출처리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 ▶청소차 쓰레기를 수거한 후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 시간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을 봤을 때 환경보호과 ☎460-2016~4 신고



산불! 꼼짝 말아!

인제군은 전국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제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일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에서 산불방지단 발대식을 갖고 산불 제로화를 선언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전에 들어가

인제군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회생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창출, 문화·복지서비스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주요 신규 및 현안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리·상남 통합 상수

도 설치, 관대~신월간 도로 개설사업, 모험레포츠시설 점속도로 개량,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 원통 초록공원 조성사업, 31번 국가도로망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이번 계획한 정부예산 100%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달 부터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직접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해 실과 소장을 반장으로 예산확보 및 정부공모사업 등 국비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817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해 소양강 인제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국가직접 시행사업을 포함하면 모두 1천373억여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인제군은 정부예산확보대책반을 항상 가동해 국비사업에 대한 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부지원 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

마음도 든든한 풍수해 보험

인제군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 가입대상은 단독·공동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주택이 없는 세입자라도 세입자 동산 보험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기준대비 70%·80%·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나 2년 또는 3년 등 장기계약도 가능하며 총보험료의 55%에서 최고 86%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 받는 재난지원금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이른 시간에 없어질 수 있어 7월 장마철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같은 풍수해보험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어 보험료 대비 보상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인제군을 통한 단체계약을 하면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년계약일시납을 하면 연요율의 175% 적용으로 12.5%의, 3년 계약 일시납을 하면 연요율의 250% 적용으로 16.7%의 할인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이에 대한 문의는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460-2096)으로 하면 된다.

☑ 풍수해 보험료 안내 <2013년기준>

구분	보험 목적물	보험금액	보험료(1년)			
			계	주민	국가지원	인제군
주택	단독주택 50㎡이하	4천500만원	41,600	17,800	20,100	3,700
	단독주택 50㎡이하	9천만원	83,300	35,800	40,100	7,400
비닐 하우스	내재해형 330㎡	597만1천원	418,200	188,100	195,000	35,100

인제로컬투어사업단

내나라여행박람회서 수학여행 유치 마케팅 펼쳐

인제군이 인제관광의 컨트롤 타워로 집중 육성 지원하고 있는 (사)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이하 로컬투어사업단)이 대도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제 로컬투어사업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학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제군의 농촌마을, 일반관광자원, 농촌체험프로그램(학교장터 등록상품) 안내 등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일반 관광객, 여행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인제군 농촌관광자원 소개와 더불어 압화부채만들기, 나무꽃공예 체험활동을 진



행하는 등 도시 관광소비자들을 마음을 흔들었다.

로컬투어사업단은 수학여행 학교 1개소를 지역에 유치할 경우 유입되는 자금은 대략 3천만 원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3천544여개 학교를 감안한다면 이는 1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추산하면서 수학여행단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미래의 잠재 고객인 청소년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컬투어사업단은 올해 서울에 있는 중학교 등 4개교(750명)의 수학여행단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5개 학교(910명)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교육청, 해당학교 등의 직접적인 방문활동 및 팸투어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수학여행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7월부터 기르는 개 등록해야 한다

인제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집에서 사육하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3개월 이상된 개는 기르기 시작하지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만원부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은 인제동물종합병원(☎461-3960), 낭만강아지(☎ 070-4157-1156), 꾸러기 애견샵(☎463-7455)으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한 문의는 농업기술과 축산지원담당(☎460-2265)으로 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3월의 농사정보 안내

잡초성벼 예방 4월부터 물 대줘야

최근 앵미 또는 돌벼라고 불리는 잡초성 벼가 발생해 쌀 품질을 떨어뜨려 쌀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방제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잡초성 벼의 특징은 키가 크고 벼 알이 쉽게 떨어지며 현미색이 적색으로 쌀의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잡초성 벼의 증가의 원인은 잡초성 벼가 섞여있는 개별농가에서 채종한 종자를 사용했거나 경운·정지 작업 소홀, 물관리의 소홀, 재배 포장에서 잡초성 벼 제거 소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벼와 유전적 성질이 동일해 현재까지 개발된 제초제로는 잡초성 벼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없어 경종적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잡초성 벼의 경종적 방제요령은 우선 재배 포장에서 발생된 잡초성 벼를 출수 후 10일 전후에 재배포장에서 제거를 먼저 실시하고 저온 발아성(10℃에서 23일)이 높은 특성을 이용해 4월 초순부터(뚝지리설치 시기) 논에 물을 담수(반복)시켜 발아시킨 후 로터리 작업을 하거나 비선택성 제초제 살포를 병행해 방제한다.

이와 같은 방제 활동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잡초성 벼의 발생을 점진적으로 방제하는 실천이 뒷받침 돼야 한다. 벼 종자 소독은 물의 온도를 30~32℃로 맞추고 48시간을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갈아 침종하면 된다.

<소득기술과>

씨감자 보관 흑색심부병 조심해야

감자 재배용 씨감자는 보관에 소홀히 할 경우 흑색심부병이 발생해 과중의 어려움은 물론 상품성까지 떨어뜨리게 한다. 흑색심부병은 감자안의 세포가 죽어 검게 변하는 생리장해로, 보관 중인 감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발병한다.

특히 감자 싹이 나오는 봄철에는 호흡이 왕성해지면서 저장할 때보다 산소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함에 따라 병의 확산속도가 빨라진다. 또한 씨감자를 자루 등에 담거나 온돌방·비닐하우스에 보관할 때 환기나 차광을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씨감자의 호흡량이 급격히 늘면서 병이 생긴다

따라서 3월 중순부터 공급되는 보급종 씨감자를 비닐하우스에 보관할 경우 3~4℃를 유지하고 차광막을 씌워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씨감자 싹튀우기는 통풍이 양호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은 곳에서 펼쳐 놓고 온도는 15~20℃, 습도는 80~90%를 유지하며 25~30일간 유지하며 싹이 1cm 정도 길러 과중한다.

공공하수관 잘못된 사용 오히려 불편

하늘내린 인제의 맑은 물을 지키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설치된 공공 하수도시설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불편을 불러오고 있어 인제군은 올바르게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기능을 대비시키는 대표적인 잘못된 사용은 아무 생각없이 불용성 쓰레기 등을 버림으로써 하수도관이 막히게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사용 때문에 하수도 역류와 악취 발

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깨끗한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고 청정 인제를 가꾸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개수대와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하수의 배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변기에 생리대와 물티슈 등 불용성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하수관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욕실배수구에 머리카락·타올 등 욕실 용품을 버리지 않도록 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수대 거름망과 욕실 배수구 청소를 게을리하지 말고 청결상태를 늘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공공하수도는 가구별로 관리하던 정화조를 걷어내고 가정용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결해 처리하는 편리한 시설이다.

<상하수도사업소>

버려진 양심을 찾아주세요 ^^



원통 338번길 암체 투기

북면 원통로 338번길 부근 풍차주유소 맞은편 부근에 버려진 스티로폼을 비롯한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 등 건축 폐기물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흔히 배

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차량을 이용해 남몰래 버리고 간 암체족의 검은 양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품고 하고 있다.

인제군은 이와 같은 쓰레기 불법 배출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투기지를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보호과>



높은산 자라는 북방계 나무

높은 산에 자라는 북방계 큰 키의 나무로 줄기는 높이 20~30cm에 이르며 줄기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다.

어리까지의 잎은 끝이 갈라지고 길이 4cm정도이나 열매가 달리는 가지의 잎은 길이가 1.5~2.8cm로 짧다.

암술방울은 자주색이며 길이 4~5mm의 수술방울은 길이는 1cm정도이며, 성숙



한 솔방울은 위를 향해 똑바로 서며 길이는 4~6cm 이고 지름은 2~2.5cm 이며 녹색을 띄고 있다.

솔방울 끝에는 비늘처럼 뾰족한 돌기가 나 있으며 열매가 녹색인 것을 변종인 청분비나무로 구분하기도 한다.

복지 사각지대 특별 조사 실시

인제군은 최근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자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 방법을 찾아보는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어려운 이웃을 지역주민과 함께 찾아내 적합한 공공지원

및 민간지원 연계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사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일정기간 이상 공공요금 체납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부양의무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실직·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집중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인제군은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알고 있는 주민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460-2213) 또는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 및 아동폭력 근절 이동상담소 운영

인제군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인제 5일장 가운데 하루인 매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제 옛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찾아가는 여성 및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는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전문상담사를 초빙해 가정폭력 대처 방법 및 상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인제 만들기 실현에 함께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경로가족과 여성가족담당(☎460-2052)으로 하면 된다.

<경로가족과>



일하는 건강한 노년, 함께 합시다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지역경제회생에 기여하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발대식이 지난 5일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에서 마련된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

인제군은 건강한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민이 참여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인과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 1

층으로 나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관리담당(☎460-2242)으로 하면 된다.

<보건소>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업 추진

어려운 이웃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하고 수급자의 건강 상담 및 필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제군은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외래 및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부적정 의료이용행태를 보이는 대상수급자, 질병대비 불필요한 의료이용 또는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수급자이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의료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의료인으로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같은 병으로 동일성분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중복투약자 관리는 수급자 개인별 누적관리이며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사례 관리실시를 통한 의료이용행태 시정을 권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자는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전액을 3개월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다시 기준을 위반해 중복 투약한 3차 위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460-2211)으로 하면 된다.



인제소방서와 열려라 공부 학습지원

○...인제 드림스타트와 인제소방서가 함께하는 열려라 공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군 복무를 위해 인제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소방대원 2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드림스타트 대상 초등학생 10여명에게 매주 토·일요일 수학 및 논술 지도를 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제군과 인제소방서는 지난 6월 인제소방서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난 8월 첫 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유능한 의무소방대원의 자발적 의지로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학습

능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치과·원통치과 무료 레진치료

○...인제군은 관내 현대치과·원통치과와 협약을 맺고 드림스타트 아동의 치아 건강을 위해 치과 무료로 복합레진치료를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열달 동안 진행되며 어린이 한 사람당 2개까지 지원된다.

한편 레진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으로 제 때에 충치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복합레진치료를 추진하게 됐다.

<주민생활지원과>

북면청소년 문화의 집 소식



아자! 통! 첫 행사 폭발적인 인기 누려

북면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9일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소통(아자!통!)이라는 주제로 제1기 부모와 자녀의 소통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날 오리엔테이션, Open Mind, 속초 한마음코칭센터 주기원 원장의 부모교육, 인제 아트스토리 미술심리강사 8명이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아자!통!프로그램의 첫행사인 이번 1기 아버지들의 호응이 좋아 계획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참가한 자녀들 또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나누었다.

북면청소년문화의집은 이번 1기의 성공을 계기로 2기 3기 참가자를 모집 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북면청소년 문화의집 (☎462-1300)으로 하면 된다. <북면사무소>

북면 물레방아 군부대 꾸준한 위문활동

봉사단체 물레방아(회장 안기현)는 지난 13일 전방에서 국토방위에 애쓰는 육군 5969부대 3대대를 방문해 600여명의 장병이 먹을 수 있도록 삼겹살, 과자 등(시가 400만원상당) 전달하면서 추위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군 장병들을 위문했다. 봉사단체 물레방아의 선행활동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회원 13명이 매월 회비를 걷어 지금까지 관내 10개 부대를 20여 차례 위문행사를 펼쳤다. <북면사무소>



상남여성의소대, 주택화재 진화작업 나서

상남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정순자)는 지난 2일 새벽에 발생한 하남1리 주택화재 사고에 출동해 화재 진압에 참여했다.

상남면 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2009년 1월에 창설해 각종 화재진압 및 실종자수색 활동에 참석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거리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안전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나는 새 농어촌 건설운동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마쳐

서화면 서흥2리 서화면 서흥 2리 제2기 마을기업형 새 농어촌건설운동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희춘)는 지난달 20일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마을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강원도 평창 산채음퓌마을과 횡성 둔내면 삼교 1리 산채마을 등을 둘러보고 마을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서흥2리는 마을 소득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 판매 사업이 지난 4일 첫 생산이후 절찬리 판매 중에 있다 <서화면사무소>

마을발전전략 특강 마련

서화면 천도1리 서화면 천도1리 복사꽃피는 마을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염용갑)는 지난 8일 마을주민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주민의식강화를 위한 강원발전연구원 강종원박사와 이영길박사를 초청해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마을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마을발전 전략 수립에 대해 과학적



이고 학술적인 강의를 듣고 잘 살고 쾌적한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사고로 마을역량을 결집시킬 것을 다짐했다. <서화면사무소>

가리산리 · 남전1리 테마마을에 선정

인제군은 지난 2011년부터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자유 응모 테마마을에 인제읍 가리산리와 남면 남전1리가 각각 선정 됐다.

인제읍 가리산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방재체험 마을로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으로 방재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농산물가공시

설 · 문화체험공간 · 자연산책로 · 방갈로 조성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마가목숲 조성과 방재체험 등을 통한 농업6차 산업을 병행하는 특색 있는 테마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남면 남전1리 햇살마음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제로에너지 햇살체험관 · 작은 영화관 등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산야초 및 표고버섯

공동 재배 등을 통해 묵은 갈등을 풀며 마을주민이 돈독한 정이 넘치는 햇살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제군은 이번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해 내달부터 2년에 걸쳐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 자생력을 갖춘 농촌 테마마을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업정책과>

상남면 산불예방활동 펼쳐

상남면사무소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산불 발생 위험성 높은 도로변의 묵은 잡목과 낙엽을 제거해 환경정화 작업은 물론 산불 발생 위험을 예방했다.

이번 행사에는 상남면사무소 직원 등 공무원 10명, 진화대 10명, 유급감시원 16명 등 모두 36명이 나서 지난 11일 상남면을 가로지르는 31번 국도와 451번 지방도 노선 가운데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 도로변의 정화 작업을 펼쳤다.

이로써 도로를 달리는 차량 밖으로 버려지



는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전국 최대의 산림을 자랑하는 인제군의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상남면사무소>

사부이신 김광택 무예경지 이르고 싶다

晚木聲奔野(단풍나무 흐르는 바람 들을 가로질러 치닫고)

寒山影入村(서리 내린 산 그림자 마을에 발 들여 놓는다)

晴鷗飛點水(잠 깐 갈매기 날다 물을 차고 오르

고)

倦(牛+字)臥看山(게으른 암소 누워 산을 바라보누나)
절기는 어김이 없어 덩고 나면 다시 차가워지는 법이다.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세월이다. 누가 말을 했던가.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고. 서울을 떠나 이 곳 귀둔곡에 들어 온지 어언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백동수는 시로써도 달랠 수 없는 울적한 심사를 풀려고 초어정 마당을 걸어보기도 하고 마루에 앉아 멀리 가칠봉을 바라보다가 마음을 풀어 놓는다.

해가 넘어가자 가칠봉 산머리 위 떠오른 차가운 달. 그 창백한 얼굴 사람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한다. 서울을 떠나 온 지도 어언 십년 가까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달빛 밝은 밤이면 가끔씩 그리운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얼마 전 합강정에서 떠나보낸 여옥이도 그렇고, 자형인 형암 이덕무는 또 어떠하고 다시 또 없을 기념자 박제가는 어떠하다 말인가.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검이 더욱 세련되고 우아하게 만들어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 올려준 사부인 김광택.

이렇게 냉광을 뿌리는 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더욱 사부에 대한 정이 더욱 애틋하다.

임오화변이 있기 두 해 전인 경진년 가을. 백동수는 당시 검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김광택을 수소문 했다. 조선 최고의 검. 전설의 검객 김체건으로부터 검보를 물려받은 그가 아니던가. 그 검보를 물려받지 않고는 어찌 조선 최고의 검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백동수 나이 열여덟. 천하에 두려울 것도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었을 혈기 방자한 그때.

당시 동대문 밖에 살고 있던 김광택을 찾아 호기롭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나 돌아 온 답은 참으로 냉담했다. 아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김광택이 말했다. 서성(書聖)이라 일컫는 왕희지가 이르기를 비인부전(非人不傳)이라했다는 게다. 도를 전수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백동수가 누구이던가. 그런 말 몇 마디에 녹록하게 뒷걸음질 위인이 아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광택을 찾아 가르침을 청했다.

그런 백동수를 보고는 김광택이 물었다.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길입니다”

기린협에서의 아내 백동수

48. 초대하지 않은 손님(1)

박영호의
상상 풀어내기



“그러면 길이면 모두 도라할 수 있더냐?”
“아닙니다. 한 두 사람이 간 것을 가지고 어찌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도 다녔고 지금 사람도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 올 사람도 다닐 수 있어야 비로소 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길이 다 옳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라 해서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옳고 그름을 무엇을 측량할 수 있느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곧으면 그 가는 길이 곧을 것이고 마음을 굽었다면 그 가는 길도 굽을 것입니다. 해서 마음이 곧으면 그 가는 길이 옳다 할 것이고 마음이 굽었으면 그 가는 길도 그르칠 것입니다.”
“맹자께서 이르시길 ‘得天下英才而於教育之’

백동수는 자신의 사부이신 김광택이 연마했던 그 경지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물론 이것을 처음으로 완성한 것이 자신의 사부인 김광택이 아니다. 김광택의 아버지이며 전설의 검객인 김체건이 완성한 기예이다.

김체건은 조선 최고의 전설적인 검객이다. 이미 현종 조에 훈련대장 유혁연의 지시를 받아 동래 왜관에 들어 왜검을 익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숙종 조에 영의정 김석주가 북경에 사신으로 갈 때 그가 말하기를 왜관에 들어 왜나라 검법을 익힌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 사람을 북경에 데리고 가 중국 검법까지 익히게 한다면 명실 공히 조선, 왜, 중국 검법을 집대성한 최고의 검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면서 숙종대왕의 윤허를 받아 함께 다녀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숙종의 부름을 받아 어전 무예 시연을 가졌다고 한다. 우선 바닥에 재를 깔아 딛는 발의 자국이 고스란히 남도록 하고 나서 그 위에서 무예를 시연을 갖도록 했다.

때문에 김체건은 무예를 시연하면서 발바닥으로 딛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섰고 또한 움직였다고 한다.

그렇게 남겨진 발가락 자국마저도 움직이는 바람에 잣가루가 가벼이 날리며 살포시 내려 앉으면서 문혀 버려 시연을 마치고 났을 때 재위에는 그 어떤



여수 거북선 축제 24반무예협회 시연 (사진제공: 24반 무예협회)

三樂也(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군자의 세번째 낙이다)라 했더냐? 이제야 나도 군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구나. 내 너를 거들 만하구나.”

오늘 밤 또 얼마나 많은 찬 서리가 월도의 칼날 위에 앉아 녹아내릴까.

백동수는 월도 자루를 굳게 잡았다.
중천까지 치달은 달빛이 초어정 연무장에 안개처럼 흩어져 내리고 있다. 구름 한 점이 없는 하늘. 난초 꽃잎 같은 남색이 완연하고 그 촘촘함이 마치 대낮과도 다름이 없지 않은가.

앞에는 재를 두텁게 깔아 놓았다. 넓이가 네 평은 족히 될법하다. 달빛은 함박 머금은 재는 마치 늑대 가죽을 깔아 놓은 듯 보드랍고 평온하다.

발자국도 남아 있지 않았고 전해지고 있다.

그날 그가 보인 무예의 경지는 나감과 물러섬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힘의 극치가 아니라 흐름이 물과 같이 유려해 고요함으로써 움직임을 제압하는 이 정제동(以靜制動)의 경지를 보였다. 그야말로 武는 舞로 통하는 절륜의 경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런 김체건의 검보가 그대로 백동수의 사부인 검신 김광택에 전해지고 그 경지를 백동수가 두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부인 김광택은 자신의 부친인 김체건의 어전 무예시연을 그대로 재연했다. 당시 백동수에게는 충격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경지가 아득하기만 했다. <계속>

무예도보통지 편찬에 직접 참여했던 조선 후기 최고의 무인인 백동수가 인제기린협에서 생활했던 역사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인제군 무예자원의 발굴과 문화관광 자원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녹색성장 포럼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조선시대를 조명한 각종자료를 참고로 백동수의 기린

협에서 생활 재구성해 풀어 나가하고자 한다. 현재 전개되는 기린협에서의 아내 백동수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픽션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읽는이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군정메모판

4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날짜	읍면	마을
2일	남 면	어론리공판장
3일	기린면	진동리
4일	북 면	한계2리
7일	인제읍	귀둔2리
8일	남 면	남전1리
9일	기린면	북1리
11일	북 면	원통7리
15일	서화면	천도4리 학교
16일	상남면	상남4리
17일	인제읍	덕적리
18일	남 면	갑둔리
21일	기린면	서2리
23일	북 면	월학2리
24일	상남면	상남3리
28일	인제읍	원대리
29일	남 면	부평리
5월1일	기린면	서1리

순회 수리교육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문의는 농업정책과 기계영농담당(☎460-2254).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2월 (상하수도 사업소)

수질기준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이연	염소이온	철	망간	잔류염소
	100CFU/ml	음성/100ml	음성/100ml	0.5mg/l	1mg/l	1mg/l	250mg/l	0.3mg/l	0.3mg/l	4mg/l
덕산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2	불검출	0.007	12.7	불검출	불검출	0.70
부평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8	0.018	8.6	불검출	불검출	0.72
용대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27	0.011	4.2	불검출	불검출	0.62
천도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1	0.134	7.4	불검출	불검출	0.79
현리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1	0.040	9.0	불검출	불검출	0.71
상남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3	0.029	17.5	불검출	불검출	0.76
서화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6	4.1	불검출	불검출	0.78

농어촌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시행

인제군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기업경영 및 재정지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제지역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농어촌버스 운전석에는 카드거래처리와 데이터 통신 기록이 가능한 승차 단말기와 승하차 처리금액 표시, 음성 안내, 무선 통신 등의 기능을 장착한 운전자 조작기 설치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또한 카드업체 및 버스업체에는 버

스 기초 정보조회, 버스 거래내역 집계, 거래내역 통계, 단말기 상태 조회가 가능한 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인제군은 카드할인율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교통카드 사용자는 일반은 1천100원에서 1천원으로 100원이, 청소년은 850원에서 700원으로 150원이, 어린이는 550원에서 500원으로 50원이 각각 기본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른 현재 선

불카드를 관내 편의점에서 구입·충전 할 수 있으며 후불카드(교통카드 기능탑재)는 롯데, 신한, 농협, 국민, 씨티, 비씨, 외환, 하나, 현대, 수협카드로 가능하다. 인제군은 교통카드 도입으로 버스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짐은 물론 승차권 발매의 번거로움 해소, 노선 안내방송 등 버스이용객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원봉사과 교통행정담당(☎460-2033)으로 하면 된다.

2014년도 농업기계 임대료

(단위 : 원/1일)

기종명	규격	금액
탈망기	180kg/h	2,300
중자밭아기	온탕소독겸용	1,100
승용벼직파기	점파8조	54,400
승용이앙기(국제)	6조	43,800
승용이앙기(대동)	6조	44,200
보행형이앙기	4조	9,100
콤바인(대동)	4조	140,000
콤바인(동양)	4조	137,400
콤바인(국제)	4조	135,200
플라우(쟁기)-트랙터용	모ULD단용3	5,500
플라우(쟁기)-트랙터용	모ULD단용4	7,300
플라우(원판쟁기)-트랙터용	6련	9,500
플라우(원판쟁기)-트랙터용	8련	11,200
논두렁조성기-트랙터용	40cm	7,800
크랭크로타베이터-트랙터용	1450mm	45,200
크랭크로타베이터-트랙터용	1750mm	36,800
크랭크로타베이터-트랙터용	1900mm	38,300
로타베이터-트랙터용	1800mm	8,600
로타베이터-트랙터용	1900mm	6,800
로타베이터-트랙터용	2050mm	9,800
유림복토기-트랙터용	2두둑	21,300
구굴기-트랙터용	27cm	12,200
심트 파쇄기-트랙터용	3조	6,400
돌파쇄기-트랙터용	50cm	46,700
돌파쇄기-트랙터용	100~150cm	46,200
돌수집기-트랙터용	60~70hp	37,600
농용굴삭기(동은개발)	12hp	41,900
농용굴삭기(동양물산)	12hp	78,000
보행관리기	4.8kW	7,000
비닐피복기-관리기용	180cm	900
로타리-관리기용	60cm	300
구굴기-관리기용	25cm	200
유림기-관리기용	60cm	600
고무자륜-관리기용	67cm	1,500
파종기(수동)	1조	1,200
비닐피복기(무동력)	60~120cm	1,100

기종명	규격	금액
퇴비살포기-트랙터용	700kg	10,400
퇴비살포기-저주식	1.0t	65,300
퇴비살포기-저방용	1.5t	22,000
퇴비살포기-트랙터용	2.1t	19,100
퇴비살포기-트랙터용	3.5t	35,200
퇴비살포기-트랙터용	4.0t	22,700
퇴비살포기-경운기용	1.1t	12,900
비료살포기-트랙터용	300kg	1,600
동력분무기(주행형)	60ℓ	14,800
망속작물수확기-트랙터용	100cm(현대)	9,300
망속작물수확기-트랙터용	130cm(두루)	11,100
망속작물수확기-트랙터용	140cm(두루)	11,800
망속작물수확기-트랙터용	140cm(산중)	14,000
망속작물수확기-트랙터용	140cm(강원)	14,700
망속작물수확기-경운기용	60cm(두루)	2,000
감자수확기-트랙터	65cm(로명)	109,600
베토기-트랙터용	250cm,2굴	11,500
자주식베일러	본체	물당5,000
동력예취기(자주식)	87cm	14,100
건조모우기-트랙터용	320cm	9,800
결속기(원형소형)-트랙터용	65cm	31,500
결속기(원형중형)-트,제인	100×100cm	102,300
결속기(원형중형)-트,블러	150cm	95,200
결속기(사각)-트랙터용	137cm	60,400
결속기+수확기(옥수수)	85×85cm	198,700
램피복기-트랙터용(아세아)	100×100cm	53,600
램피복기-트랙터용(라이브)	100×100cm	60,000
램피복기-트랙터용(명성)	100×100cm	70,000
농용로우더	0.38㎡	74,600
콩예취기(자주식)	30cm	15,000
콩탈곡기-트랙터용	350kg/h	5,800
콩탈곡기(모터식)	350kg/h	4,400
콩탈곡기-경운기용	350kg/h	6,000
잡곡콤바인	157cm	214,500
콩정선기(고정식)	1000kg/h	kg당 20
잔가지파쇄기-트랙터용	260mm	28,600
목재파쇄기(자주식)	445mm	165,000
파이프벤딩성형기	220V	12,800

4월 무료 정보화 교육 안내

과정	기간	시간	장소
소셜네트워크(PC)	31일~4월11일	13:00~15:30	인제 교육장
소셜네트워크(스마트폰)	4월14일~18일	13:00~15:30	
엑셀기초	31일~4월11일	10:00~12:00	원통 교육장
엑셀활용	4월14일~18일	10:00~12:00	

교육관련 문의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460-2023)

주민등록 일제정비 4월 30일까지 추진

인제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모두 63일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실조사기간 동안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

민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 해당주민이 기한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유도하는 한편 바로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며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6·4 지방선거 시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특히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일제정리기 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460-2031)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인제군은 올해 처음으로 오로지 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에 의존해 생활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오는 4월 현재 주민등록상 인제군

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의 부품수리비(모터, 발판 등 소모품) 및 배터리, 경광등 설치 등이며,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조건은 1인당 30만원 이

내이며 경광등 설치비용은 대당 10만원이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보장구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 후 수리비 지원 신청서, 수리 검사조서, 견적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살고있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로가족과 장애인복지담당(☎460-2053)으로 하면 된다. <경로가족과>

재난사고 긴급민원 신고 14종 119 통합운영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119로 전화하세요”

인제소방서(서장 김용락)는 재난 사고 및 긴급민원 신고와 관련된 특수번호를 국민이 모두 기억하기 어려워 시기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들

편을 최소화 하는 ‘119신고 확대서비스’가 운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119로 통합되는 서비스는 123(전기), 121(수도), 128(환경), 1366(여성긴급), 1577-1366(이주여성긴급), 1388(청소년상담), 1577-0199(자살), 1577-1389(

노인학대), 1577-1391(아동학대), 1588-3650(재난), 1330(관광통역안내), 1345(외국인종합안내), 1544-4500(가스), 지역도시가스회 사번호 등 14종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위의 번호로 신고해도 되지만 119로 전화해도 긴급민원이 접수 처리돼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제소방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인제군은 2014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하반기 분으로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사항 등이 있으면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e-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간단e납부가 가능하며 납기 내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편리한 납부할 수 있음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460-2061)으로 하면 된다. <환경보호과>

곰취사업 설립동의자 모집

인제곰취협동조합은 협동 조합기 본법에 의거 인제곰취 사업을 이끌어갈 설립참여자(조합원)를 모집한다. 조합원 자격은 인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7일까지 산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팩스(☎460-2079)로 접수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인제곰취 사업단)으로 인제곰취 사업단을 통해 홍보 및 박스 디자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자는 1구좌 금액 10만원으로 최대 50구좌까지 가능하며 개인은 1구좌 이상 법인사업자는 10구좌 이상 해야 한다. 출자금은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적립금으로 탈퇴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창립총회는 4월 11일 개최할 예정이며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는 인제곰취명품 클러스터 사업단(☎460-2074) 또는 심광섭 발기인대표(HP 010-5223-1098)로 하면 된다. <산림복지과>

2014년도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

인제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2014년도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을 지난 12월자로 공고했다.

이사업의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신축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주택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인제군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용자 지원으로 건축되는 농어촌주택(용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을 포함),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해 건축하는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복구비가 지원돼 건

축하는 재해복구 주택 등이다. 지원 범위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난 1월 1일 이후 신축 사용승인(건축물 대장 등재)된 주택으로 올해 11월 28일까지 접수분까지만 인정되지만 이미 신청·접수했다가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선정되지 못한 주택은 제외된다. 신청은 도시건축과 또는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신청기관내 비치된 소정양식)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관주택선정은 6월과 12월에 걸쳐 두 번 실시될 예정이며 문의는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460-21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하면 된다. <도시건축과>

군정메모판



운전정밀검사 휴일 서비스

교통안전공단은 편리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위해 올해부터는 휴일검사를 시행한다.

시행검사장은 교육안전센터 및 제주지사를 제외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으로 시행일자는 오는 4월 13일, 6월 15일, 8월 10일, 10월 19일, 12월 14일 등 5차례이다.

검사를 위한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및 공단 강원지사(☎262-3367)로 하면 된다.

다만 검사장 하루 수용인원이 제한돼 있음으로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오전 9시나 오후 1시 20분까지 검사장에 도착해야 한다.

이에대한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262-3367)로 하면 된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안내

국민연금공단 흥천지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이며, 지원수준은 사용자 부담금 및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의 각 절반 수준이다. 신청은 사용자가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보험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신규사업장은 당연 적용 해당 신고서에 신청여부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에대한 문의는 공단 흥천지사(☎430-5410)로 하면 된다.

주택연금제도 가입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살고있는 집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안내를 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에서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이 제도는 부모공양과 자식 교육을 마친 후 집 한 채만 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집에서 부부가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금 혜택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연금액을 집값과 비교해 모자라면 정부가 부담하고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국가보증제도이다.

이에대한 문의는 공사 강원지사(☎259-3615)로 하면 된다.



관철, 테러범, 방산스파이, 사이버테러, 군사 보안신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 국군기무부대로

아름다운 하늘내린 이웃



원통안식일교회 경로당 봉사활동

원통안식일교회 교인 13명으로 구성된 봉사 모임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장 많이 찾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 칩·뜸·발 마사지·중풍예방·이발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칭송이 자자하다.

이번 겨울은 용대1·2리, 한계3리, 원통6리, 가아1·2리, 덕산리, 서화1·2리, 서흥2리 등 경로당을 찾아 움직이기 불편한 한의원이거나 이발소를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랑의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봉사활동이 결성되기까지는 북면 원통리에서 명동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규표씨가 지난 20여년 전부터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출장 이발봉사를 하던 것이 계기가 됐다. 김규표씨의 나홀로 봉사활동에 5년전부터 원통안식일교회 교인 12명이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북면사무소>

남면여성의용소방대 바자회 봉사

남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숙자)는 남면 노인회(회장 김희준·여회장 이신옥)와 함께 지난 13일 남면 시장일대에서 먹거리 장터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여성의용소방대와 노인회는 가래떡, 전병, 어묵꼬치 등을 마련해 판매한 수익금 160만원을 남면 사무소에 기탁해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남면 여성의용소방대는 새봄맞



이 마을대청소에 나서는 등 지역에서 그녀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있다. <상남면사무소>

인제소방서, 감자팔아주기 동참

인제소방서(서장 김용락)는 지난해 전국적인 감자 가격이 폭락해 감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생산 농가인 김영기(인제읍 귀둔1리)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전 직원이 나서 10kg들이 104박스를 구매해 감자생산 농가의 영농의욕을 북돋았다. 인제소방서 전 직원은 이와 같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관내 어려운 농민



들과 함께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인제소방서>

당학금 기탁 감사합니다

▶심우흥(인제군청 세무회) 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성규) 100만원 ▶이모뮬피(대표 신광용) 100만원 ▶원 >인제군산림조합(조합장 김봉) 1천만원 ▶인제군축구심판협의회의(회장 최명규) 50만원 ▶(사)손으로만드는세

상대표 강수경) 30만원 ▶인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복) 100만원 ▶염윤순(인제군의회의원) 56만원 ▶신남리노인회(회장 김희준) 100만원 ▶상남4리 경로당(회장 김진옥) 100만원 ▶푸른솔조기축구회(회장 최수철) 100만원 ▶서화면마을부녀회(회장 이효연) 100만원 ▶한국사진작가협의회(인제군지부(지부장 김장현) 50만원 ▶인제군하추리미유희회(회장 김재노) 200만원 ▶용대향토기업(대표 박문실) 300만원 ▶고광호(인제읍 덕산리) 300만원 ▶인제군양봉협회의(회장 김정수) 100만원 <자치행정과>



성금을 기탁하신 모든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금 기탁자 명단

서화면=>연남석 3만원 ▶박주희 1만원 ▶유지호 1만원 ▶박건우 1만원 ▶김정찬 3만원 ▶이희성 1만원 ▶최영수 5만원 ▶대암산오미자영농법인 10만원
상남면=>박주홍(상남면 하남리) 10만원 ▶상남면미산2리주민일동 10만원 ▶동산숯불 10만원 ▶상남면미산2리부녀회 5만원 ▶하남2리부녀회(김완순) 5만원 ▶상남면부녀회 10만원 ▶상남2리지역주민일동 10만원 ▶이일구(상남면노인분회) 10만원 ▶상남1리노인회(회장) 10만원 ▶미산1리경로당 5만원 ▶하남1리노인회 5만원 ▶인제군상남면하남3노인회 5만원 ▶인제군상남면하남2리경로당 5만원 ▶상남면계이트볼회 10만원 ▶상남면바르게살기협의회 10만원 ▶천정임 5만원 ▶강원에프앤비영농조합법인 10만원 ▶권성택 3만원 ▶이명양(상남면 상남리) 5만원 ▶상남4리노인회 5만원 ▶엄봉식 5만원 ▶전평화(상남면 상남리) 5만원 ▶상남생활개선회일동 5만원 ▶상남1리부녀회일동 5만원 ▶상남3리경로당 5만원 ▶나정채(상남면 미산리) 3만원 ▶상인건설 10만원 ▶상남2리경로당노인회 5만원 ▶상남면사무소직원일동 23만원 ▶미산2리경로당노인회 10만원 ▶신장호(상남면 미산리) 3만원 ▶기린농협 상남지점 10만원 ▶떡촌식당 3만원 ▶상남주유소 10만원 ▶인영자 3만원 ▶상남3리주민일동 10만원 ▶농촌지도자상남지회 10만원 ▶상남3리부녀회 5만원 ▶대림산업 20만원 ▶상남의용소방대 10만원 ▶상남1리주민일동 20만원 ▶상남연합중기 10만원 ▶승연건설 10만원 ▶하남1리주민일동 10만원 ▶우성철물건재 10만원 ▶세븐건설 20만원 ▶오남매닭갈비 5만원 ▶하남2리주민일동 10만원 ▶강북군 5만원 ▶상남여성소방대 10만원 ▶상남4리주민일동 10만원 ▶상남4리부녀회 5만원 ▶형제정육점 5만원 ▶차정순 10만원 ▶경흥건설 10만원 ▶미산1리주민일동 10만원 ▶박희택 5만원 ▶최항규 5만원 ▶(주)성지전력 10만원 ▶손일웅 2만원 ▶상남자율방범대 10만원 ▶상남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만원 ▶김현순 10만원 ▶임대중 10만원 ▶휘영건설 (주) 20만원 ▶이기봉(기린면 현리) 5만원
추가 기탁자 명단
>인제읍=>김광석 10만원 ▶김영신 3만원 ▶김용순 1만원 ▶박경옥 1만원 ▶박홍륜 2만원 ▶손경희 5만원 ▶심동흙 3만원 ▶엄준식 1만원 ▶이광하 1만원 ▶이기식 10만원 ▶임희정 3만원 ▶홍경식 5만원
>남면=>김종심 10만원 ▶김희준 3만원 ▶남면이장협의회 10만원 ▶조창구 5만원 ▶토성건설 30만원 ▶대흥식당 10만원
>북면=>김종현 30만원 ▶용대2리노인회 10만원 ▶원통펌프카 5만원
>기린면=>기린계이트볼장 5만원 ▶김영옥 100만원 ▶푸른솔조기축구회(회장 최수철) 100만원 ▶서화면마을부녀회(회장 이효연) 100만원 ▶한국사진작가협의회(인제군지부(지부장 김장현) 50만원 ▶인제군하추리미유희회(회장 김재노) 200만원 ▶용대향토기업(대표 박문실) 300만원 ▶고광호(인제읍 덕산리) 300만원 ▶인제군양봉협회의(회장 김정수) 100만원 <자치행정과>

☑ **인제사슴생태운동본부 정기총회**

올 사업 1천200만원 계획

인제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회장 오정진)는 28일 하늘내린센터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결산 및 올해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를 사슴생태복원을 위한 노력을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할 방침이다.

인제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는 지난해 일반회비가 204만원이 늘어 나세입예산 총계가 2천742만원 규모로 꾸렸으며 세출은 운영비, 사업비, 재세공과금 등을 포함해 모두 1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제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는 올해 사업으로 세미나 2회 등 모두 1천2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대륙사슴 증식사업으로 지난 2011년 시료채취 및 구입을 위해 7천500만원의 사업비로 6마리의

대륙사슴을 입식한 결과, 결핵으로 2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다시 수사슴 1마리를 추가 구입해 모두 5마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인제사슴복원생태운동본부는 지난 2002년에 발족해 지금까지 회원 213명이 참여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민간단체로 1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사슴을 입식하는 등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정진 회장은 “사슴은 우리나라 사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우리민족의 상징성을 지닌 동물이다”며 “일제의 남획에 의해 멸종된 인제사슴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생물 자원의 수도 인제로서 명성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인제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

상하수도 고지서 수용기번호 변경

인제군은 지난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의 수용기번호를 새 주소에 맞게 변경했다.

인제군은 이와 같은 새로운 요금고지서는 오늘 3월분부터 적용했으며 고지서가 배송될 때 별도의 개별 안내문을 첨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



정담당(☎460-2141)으로 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지역소식



인제소방서, 서2리에 안전마을 조성

인제소방서(서장 김용락)는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 없는 인제군을 만들기 위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지난 27일 기린면 서2리 경로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 대해 화재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서2리 56가구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하고 里長 명예소방관 위촉했다. 이와 함께 인제소방서는 현판식 및 주택 화재예방교육, 어르신 기초 건강체크 및 응급처치 기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에 친근한 소방서의 이미지를 남겼다. <인제소방서>

남면여성 한국원자력 발대식가져

한국원자력 여성단체 인제군지회 초대회장에 정향숙(53·남면 신남리)씨가 선임된 가운데 지난달 25일 발대식을 겸한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제군지회 회원 25명이 참석해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 홍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인제군지회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는 어느 지역의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라며 지구환경보전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정향숙 회장은 남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남면 체육회 이사, 생활개선회 등에 참여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마당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린천 호스피스 소식

노인복지센터 개소 5주년 행사

내린천노인복지센터는 지난 6일 인제군보건소 대강당에서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특별히 축하공연과 함께 행복한 요양보호사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김문실 명예교수의 기초 특강과 '오르쿠로마하 프연주단'의 음악회가 마련됐다.

내린천노인복지센터는 창립기념식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한 요양보호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



의 힐링의 시간에 대해 돌아보고 요양보호사의 역할 대해서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제우체국, 청사주변도로 대청소 실시

인제우체국(국장 연장길)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체국 이미지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총괄국과 소속관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청사주변 및 인접 도로에 대한 환경정비를 마치고 난 후 고객 서비스에 온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제우체국>

인제RCE 활동

지속가능한 군부대 위한 방문협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인제전문센터(인제 RCE)는 지난달 27일 지속가능한 군부대 구축을 위해 육군 12사단 정비대대, 보급대를 방문했다.

인제 RCE는 이번 방문을 통해 부대의 전기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정책과 실천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육군 12사단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실천 기본방향과 계획을 협의했다.

이에 첫 교육으로 4월 중 12사단 을지아카데미에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인제 RCE) 정성현 이사장이 출강해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역량증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지속가능한 군부대 가꾸기의 일환으로 생명과 환경에 이로운 나무심기 행사를 12사단과 인제RCE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추진 설명회가져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인제전문센터(인제 RCE)는 지난달 19일 강원도 원주 교육지원청 2층에서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와 강원도 내 현직 교사 9명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협동학교추진설명회를 가졌다.

기존의 유네스코 협동학교 절차가 까다롭고 길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가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전반기에 승인이 나면 후반기에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접수방법도 기존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만 가능했던 접수방법을 올해에는 지역의 RCE나 도교육청을 통해 신청해 유네스코와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다변화 할 계획이다.

이에 인제 RCE는 인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인제관내의 초·중·고등학교가 각 1개교 이상씩 유네스코협동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유네스코 학교 간의 교사와 학생의 교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배워 학교내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가입문의 김창흠 010-8640-8749)

인제RCE 홈페이지 4월초 개통 예정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인제전문센터(인제 RCE)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공유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4월초에 개통할 예정이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제전문센터홈페이지(<http://www.rceinje.or.kr>)는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사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RCE 소개와 각 위원회별 사업 안내 및 교육 참가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마당을 두어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이용한 접근도 가능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제RCE 알림

■ 제7차 인제생명사회 정기강좌 안내 => 강사: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 ▶ 제목: 일본의 최근 상황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하여 ▶ 시간: 2014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 장소: 인제군청 4층 대회의실

인제 생명사회 정기강좌

인제생명사회 제6회 정기 강좌는 김진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며 전 양궁선수를 초청해 '예천에서 세계 제패까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진호 교수는 1979년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과 1983년 로스앤젤레스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하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과 3관왕을 석권하는 등 명실상부한 양궁역사의 주역으로 불린다. 현재 대한양궁협회 홍보이사 및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 양궁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성공의 열쇠

김진호 한국체대 교수

김진호 교수는 강의에 앞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양궁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살아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제RCE가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진호 교수는 생활신조가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리고 늘 감사하자' 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꼭 성공한다고 밝혔다.

예천여자중학교 1학년이 끝나 갈 즈음 3학년이던 언니 친구의 권유에 양궁이 될까라는 궁금증에서 활을 쏘기 시작했다고 했다.

당시는 굉장히 열악해 한 대의 활을 가지고 코치도 없고, 선배님들의 지도에 따라 줄을 서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활시위 당기는 연습을 했는데 그 마저도 대나무 화살에 썩 털이 달린 그런 화살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두 달 동안 화살을 만져보지도 못했다는 것. 그러나 경상도 대회에 첫 출전해 2등이라는 기염을 토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그만두었다가 감독과 교장의 설득으로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동계훈련을 거치며 저는 짧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양궁부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선수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감독의 칭찬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감독은 김진호 교수에게 자세가 좋은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칭찬이 바로 자신감을 불러오는 계기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체육대회 직전에 1천300점이 넘게 되면 주는 세계연맹의 스타배지를 받기도 했지만 늘 그렇게 행운만이 함께 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 전국체육대회 이틀전 갑자기 양궁에서 사용하는 손가락 중 한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대로 포기 할 수 없어 부상당한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두 손가락으로 경기에 치렀는데 다행히 개인 종합 우승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고 말했다.

전국체육대회 우승 이후 8번의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가 됐지만 작은 체구의 제 몸에 감독은 힘든 훈련으로 시험했지만 평소 열심히 노력해 체력을 키웠기 때문에 테스트에 가뿐히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서 태릉선수촌에 입소해 함께 있던 선배님들의 격려와 보살핌으로 각종 훈련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 있었던 전지훈련에서는 신기록까지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결국 방콕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수상했다.

또한 김진호 교수는 선수시절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라이벌이 아니라 항상 제 자신을 이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운동을 했다고 밝히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라이벌은 본인 스스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호교수는 아름답게 눈 내리는 인제에서 좋은 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접경지역개발단>